3강 풍류란 무엇인가

(1)난정기 - 왕희지

●배경

난정기는 난정서라는 이름이라고도 불린다. 왜냐하면 글에 이름이 따로 붙여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희지가 그것을 모어 서문을 썼고, 글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난정집서/난정서/난정시서라고 불린다. 하지만 고문진보에서는 난정'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蘭亭記 - 王羲之
난 정 기 왕 희 지

夫人之相與仰俯一世 : 사람이 서로 함께 일세를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부 인 지 상 여 앙 부 일 세

或取諸[1]懷抱 : 어떤 이는 마음속의 생각에 취하며
혹 취 저 회 포

悟言一室之內 : 한 방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 언 일 실 지 내

或[2]因寄所託 放浪形骸之外 : 혹은 자신이 의탁된 바[3]에 의해 육체를 벗어나 이야기를 나눈다.
혹 인 기 소 탁 방 랑 형 해 지 외

---

1)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감정적인 것에 가깝다. 풍류와 정감이 마음속에 다가옴을 의미한다.
2) 因(인) 그것에 의하여,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3) 위진남북조 시대는 위진현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3현이라고 하여 노자, 장자, 주역을 삼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의탁했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체로 의탁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질과 성품은 의탁된 바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후의 형해지외라는 것은 이 의탁된 물질적인 몸 밖에서를 의미한다.

4)雖趣舍萬殊 靜躁不同 : 비록 각각의 만가지로 성품이 다르더라도
수 취 사 만 수 정 조 불 동

當其欣於所遇 : 고요함과 시끄러움은 같지 않지만
당 기 흔 어 소 우

蹔得於己 快然自得5) : 잠시 마음 속에 즐거움들이 일어나고
잠 득 어 기 쾌 연 자 득

6)曾不知老之將至 : 늙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기분이 좋다.
증 불 지 노 지 장 지

7)及其所之既倦 : 이전에 8)권태로운 바에 미쳤는데
급 기 소 지 기 권

情隨事遷 感慨係之矣 : 그런데 정이 뒤따르고 감개가 또 이루어진다.
정 수 사 천 감 개 계 지 의

9)向之所欣 : 지난 날의 즐거움이
향 지 소 흔

10)俛仰之間 以爲陳迹 : 짧은 시간에 낡은 흔적이 되었다.
면 앙 지 간 이 위 진 적

11)尤不能不以之興懷 : 그래서 흥이 더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우 불 능 불 이 지 흥 회

況修短隨化 終期於12)盡 : 끝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가
황 수 단 수 화 종 기 어 진

---

4) 趣舍: 趣는 나아가다, 버리다의 의미
취 사 취
5) 자득에서 자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다. 여기에서 자득은 자기를 얻었다로 직역할 수 있다. 유가의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볼 때,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다의 뜻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6) 《논어·술이》에 나오는 말. 섭공(葉公)이 자로(子路)에게 공자에 관해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뒤에 공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그는 학문에 열중하면 먹는 것을 잊으며, 도를 즐기면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는 것조차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섭 공 자 로
7) 及: -에 미쳐서, -때가 되어서
급
8) 여기서 말하는 권태로워진 바는 술자리에서 처음에는 흥이 일어나지만 갈수록 흥이 떨어져 뻔해진 술자리를 의미한다. 술자리를 일상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는 술자리일 수도 있었지만, 감감개가개의라는 뒷 문장을 통해 이 술자리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표현하고 있다.
9) 向: 저번에
향
11) 尤: 그래서
우
12) 盡: 끝, 다하는 순간
진

古人云 13)死生亦大矣 豈不痛哉 : 옛사람이 말하길 '죽고 사는 일은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 인 운 사 생 역 대 의 기 불 통 재

14)每攬15)昔人興感之16)由 : 매번 옛사람이 감정을 흥기시키는 것이17)
매 람 석 인 흥 감 지 유

若合一契 : 마치 하나의 부절처럼 합치가 된다.
약 합 일 계

未嘗不18)臨文19)嗟悼 : 일찍이 문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미 상 불 임 문 차 도

不能諭之於懷 : 마음속에서 깨우쳐지지 않는다.
불 능 유 지 어 회

20)固知21)一死生爲虛誕 : 죽음과 삶을 하나로 여긴다는 것이 참으로 거짓같이 느껴지는데
고 지 일 사 생 위 허 탄

齊彭殤爲妄作 : 팽조(彭祖)와 상(殤)이 같다 한 것의 망령됨을 알겠다.
제 팽 상 위 망 작 팽 조 상

後之視今 亦猶今之視昔 : 후에 지금을 볼 때도, 지금 보는 것과 같으니
후 지 시 금 역 유 금 지 시 석

悲夫 : 슬프구나.
비 부

---

13) 장자에 나온 표현이다. 하지만 본래 맥락보다 문장 자체의 의미만을 가져왔다(斷章取義)
단 장 취 의

[네이버 지식백과]
단장취의 [斷章取義] (두산백과, 두산백과)
단 장 취 의

죽고 사는 것은 큰일이로다
14) 每: 매번
매
15) 攬: 포착하다.
람
16) 由: 실이 나오는 모양으로, 원인, 출발점의 뜻을 가진다.
유
17) 여기에서는 死生亦大矣 이 문장을 가리키고 있다.
사 생 역 대 의
18) 臨文: 臣은 원래 절벽에 다달아서 보는 모습을 뜻한다. 때문에 이 자가 들어간 글자에는 가까이 대고 보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임문을 직역하면 문장을 보기 위해 문장 앞에 서있는 것이다.
임 문 신

19) 嗟: 감탄
차
20) 固知: 잘 앎, 단단히 앎
고 지
21) 一은 여기에서 동사로 하나로 여기다는 뜻을 가진다.
일

故列敍[22]時人 錄其所述 :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진술을 기록하게 한다.
고 열 서 시 인 록 기 소 술

雖世殊事異 :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수 세 수 사 이

所以興懷 其[23]致一也 : 흥이 일어나고 이르는 것이 다 똑같으니
소 이 흥 회 기 치 일 야

後之覽者 亦將有感於斯文 : 후에 보는 사람도 이 문장에 감회가 있을 것이다.
후 지 람 자 역 장 유 감 어 사 문

---

22) 時人: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시 인

列敍: 차례 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진술을 기록하게 되었다.
열 서

23) 致 이르는 것이 다 똑같음을 의미한다.
치

(2) 귀거래사, 도연명

歸去來辭 - 陶淵明
귀 거 래 사 도 연 명

歸去來[24]兮 : 돌아가자
귀 거 래 혜

田園將[25]蕪胡不歸 : 전원이 장차 쓸모없는 밭이 되는데 [26]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전 원 장 무 호 부 귀

旣自以心爲形役 :이미 스스로(마음 속으로) [27]형역이라고 여기는데
기 자 이 심 위 형 역

[28]奚惆悵而獨悲 : 어찌 혼자 슬퍼하고 있겠는가
해 추 창 이 독 비

[29]悟已往之不諫 :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선 얘기할 수 없고
오 이 왕 지 부 간

知來者之可追 : 올 것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있음을 안다.
지 래 자 지 가 추

實迷途其未遠 : 실제로 길을 잃었지만 그 길이 멀진 않았다.
실 미 도 기 미 원

覺今是而昨非 : 오늘이 맞고 어제가 틀렸음을 알았다.
각 금 시 이 작 비

[30]舟遙遙以輕颺 : 배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고
주 요 요 이 경 양

---

24) 兮: 큰 뜻은 없다. 감정의 여운을 주는 말로 쓰인다.
25) 將: 장차
26) 胡: 초나라 지방에서 많이 쓰던 표현으로, 장자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27) 形役: 이 때의 형역은 형태에 의해 종속받음을 의미한다. 즉 마음이 형태에 의해 종속되어 주체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28) 奚: 어찌
29) 悟-知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반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0) 遙遙: 살랑살랑 흔들림

飄飄: 거세게 불지 않고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처럼 흔들림

風飄飄而吹衣 : 바람이 내 옷깃을 불어서 흔들리는 것 같다.
풍 표 표 이 취 의

問征夫以前路 : 나그네에게 앞길을 물어보니
문 정 부 이 전 로

恨晨光[31]之熹微 : 새벽빛이 저녁빛이 되는 것이 한스럽다.[32]
한 신 광 지 희 미

乃瞻[33]衡宇 : 대문을 보게 되니
내 첨 형 우

[34]載欣載奔 : 도착하니 기분이 좋고 마음이 바쁘다.
재 흔 재 분

僮僕歡迎 : 어린 종들이 나와 환영하고
동 복 환 영

稚子[35]候門 : [36]아주 어린 것들은 문에 기다리고 있다.
치 자 후 문

[37]三徑就荒 : 삼경은 황폐해지고 있지만
삼 경 취 황

松菊猶[38]存 :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송 국 유 존

携幼入室 :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니
휴 유 입 실

有酒盈樽 : 술이 술통에 가득차있다.
유 주 영 준

引壺觴以自酌 : 술잔을 당겨와 혼자 마셨다.
인 호 상 이 자 작

眄庭柯以[39]怡顔 : 마당에 가지들을 보니 얼굴이 편하게 되었다.
면 정 가 이 이 안

---

31) 晨光: 새벽빛
32) 앞 문장에서 길을 물었던 것을 보아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새벽에 출발했던 길에서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될 때까지 도착하지 못한 상황을 한스러워 한다.
33) 대문이라고 표현했지만 衡宇는 제대로 된 문이라기 보다는 집의 입구 사이에 기둥을 걸쳐 대문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載: 시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큰 뜻은 없다.
35) 候: 살피다를 의미한다. 척후병이라고 할 때 후도 이 候를 사용한다.
36) 稚子: 아주 어린애를 의미한다.
37) 은거생활을 할 때 세 갈래 길을 터 두고 출입을 막았던 것에 유래하고, 은거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38) 存은 공간적 의미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며 在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어도 많이 쓴다.

倚南窗以[40]寄傲 : 남쪽창에 기대어 마음을 크게 먹었다.
의 남 창 이 기 오

[41]審容膝之易安 : 무릎을 들일만한 방이지만 마음이 편안하다.
심 용 슬 지 이 안

園日[42]涉以成趣 : 하루종일 정원을 거닐며 어떤 취함을 이룬다.
원 일 섭 이 성 취

門雖設而常關 : 문은 있지만 언제나 빗장이 걸려 있다.[43]
문 수 설 이 상 관

[44]策[45]扶老以流憩 : 지팡이를 짚고 마음대로 쉬다가
책 부 노 이 류 게

[46]時[47]矯首而遐觀 : 고개를 바로 들어 멀리 바라보니
시 교 수 이 하 관

雲無心以出岫 : 구름은 무심히 봉우리에서 나오고
운 무 심 이 출 수

鳥倦飛而知還 : 새는 날기에 지쳐 돌아갈 줄 알았나보다.
조 권 비 이 지 환

景[48]翳翳以將入 : 해가 뉘엿뉘엿해서 곧 없어지려고 한다.
경 예 예 이 장 입

撫[49]孤松而盤桓 : 지는 해가 한 소나무에게 머무르며 소나무를 어루만지고 있다.
무 고 송 이 반 환

※귀거래사 후반부는 4강에 계속됩니다.

39) 怡: 편안히 하다.
40) 寄傲: 기대어 오만하다. 기대어 커짐을 표현한다. 위진남북조 때 주로 쓰이던 표현이다.
41) 審: 잘 아는 것
42) 涉: 거닐다.
43) 사람의 출입이 없다.
44) 策: 지팡이를 짚다.
45) 扶老: (늙은이를 지탱해주는)지팡이
46) 時: 동사로 쓰여 때때로, 그런 때를 당함을 의미한다.
47) 矯首: 고개를 바로잡다.
48) 翳翳: 어둑어둑한 모양을 의미하며, 앞의 鳥과 함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49) 孤는 여기서 고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 한 개의 뜻으로 사용된다. 후에 孤 또한 하나의, 한 개의 뜻으로 사용된다.